



환자안전
주의경보

의료인과 환자가 함께하는 수혈 전 정확한 확인

발령일 2022-10-28 (금)

안전한 수혈의 시작은 정확한 확인으로부터!



수혈 직전 2인의 의료인이 환자와 함께 확인해주세요!



혈액백 라벨 정보



환자 정보(이름, 등록번호, 혈액형)



환자안전 주의경보

의료인과 환자가 함께하는 수혈 전 정확한 확인

발령일 2022-10-28 (금)

수혈 전 환자 정보 확인 미흡으로

환자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주의 필요



환자안전사고 주요사례

사례 1



대뇌동맥류로 입원 치료 중 수혈 예정인 환자(B형)



혈액은행에서 혈액을 수령하기 위해 혈액출고 요청서를 출력하던 중 다른 환자(A형)의 혈액출고 요청서를 잘못 출력



수혈 전 2인의 의료인이 확인하는 절차를 누락하여 오류를 인지하지 못한 채 다른 환자(A형)의 혈액으로 수혈 시작



수혈 종료 후 환자 두통, 혈압상승, 산소 포화도 저하, 혈뇨 증상 보여 다른 혈액형이 수혈됨을 인지, 중환자실로 전실하여 집중 치료 시행

사례 2



간세포암증으로 입원 치료 중 수혈 예정인 환자(O형)



의료인이 혈액전용냉장고에 보관된 혈액 중 같은 칸에 보관되어 있던 다른 환자(B형)의 혈액을 꺼낸 후 수혈 시작



혈액 주입 직후 오류 발견하여 즉시 수혈 중단, 혈액이 극소량 주입되었을 것으로 예상되어 추가 처치 없이 경과 관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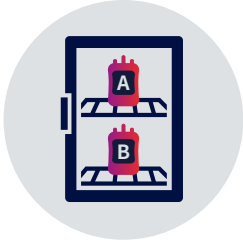
주의사항

- 위험요인** 정확한 환자, 혈액형 확인 절차 오류 및 누락
- 위해유형** 수혈 후 빈맥, 흉통, 호흡곤란, 혈뇨, 신부전, 쇼크와 같은 심각한 위해 발생
- 주의대상** 수혈을 시행하는 모든 보건의료기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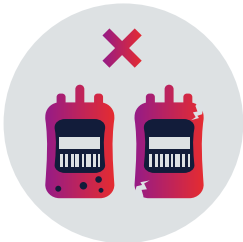
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사항

▶ 혈액 수령 후 수혈 준비부터 시작 전까지 정확한 확인 절차 수행

① 수혈 준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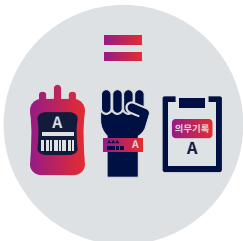


- ✓ 한 번에 한 환자의 혈액만 준비
- ✓ 혈액전용 냉장고를 보유한 부서에서 일시적으로 혈액을 보관할 경우, 냉장고 내 공간을 환자별로 구분



- ✓ 혈액의 양, 색깔, 혈액백(blood bag) 손상 등 외관 확인

혈액백 라벨(blood bag label) 파손, 혈액의 혼탁 및 부유물, 변색 또는 용혈, 기포 여부 등



- ✓ 혈액백 라벨(blood bag label) 정보, 의사의 수혈 처방, 혈액출고 요청서 내용이 모두 일치하는지 확인

모두 일치해야 수혈 시작 가능하며, 불일치 시 혈액은행에 알려야 함

② 수혈 직전



- ✓ 혈액백 라벨(blood bag label) 정보와 환자 확인

구분	정보
확인 장소	반드시 환자 바로 옆
라벨 정보 확인	2인의 의료인이 환자 곁에서 성명, 등록번호, ABO 및 RhD 혈액형을 소리내어 비교
환자 확인	가능하다면 환자에게 개방형 질문으로 성명, 생년월일, 혈액형 등을 확인 후 환자인식표와 정보 대조, 환자와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에게 확인

③ 수혈 시작



- ✓ ①, ② 절차 확인하고, 환자의 체온, 혈압, 맥박 등 활력징후 측정 후 수혈 시작

혈액은행에서 출고 후 30분 이내 수혈 시작

[참고] 의사의 처방 및 혈액출고 요청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필수 정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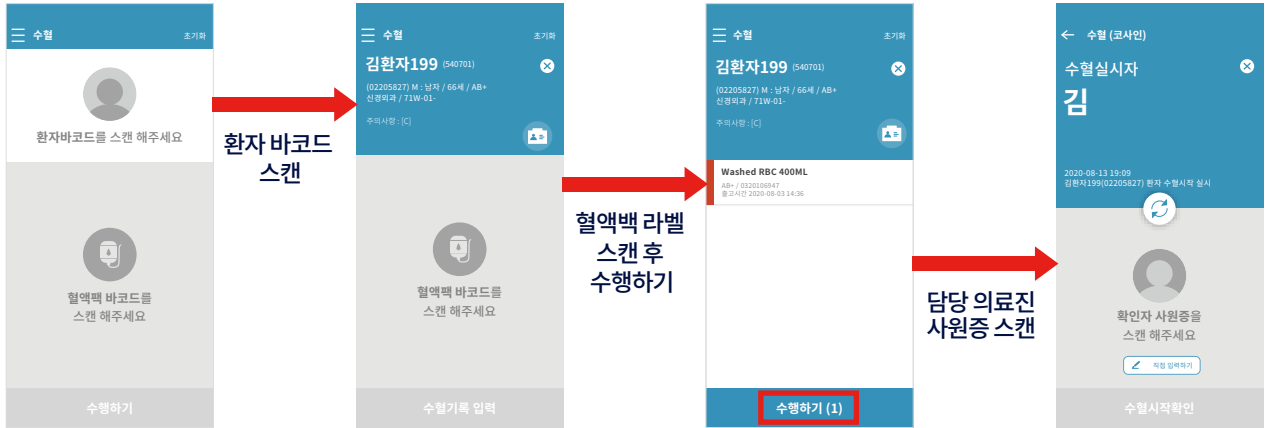
- 의사의 수혈 처방 : 환자 성명, 등록번호, ABO 및 RhD 혈액형, 혈액제제 종류, 혈액번호, 유효기간, 수량 등
- 혈액출고 요청서 : 수혈 의뢰자명, 진료과명, 환자정보, 의뢰일, 혈액제제 사용일 및 명칭, 수량 등

활동사례

[개인용 디지털 단말기(PDA)를 활용한 정확한 환자 및 혈액 확인]

※ 아래는 수혈과 관련된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개별 보건의료기관의 개인용 디지털 단말기(PDA, Personal Digital Assistant) 활용 사례로, 각 보건의료기관의 상황을 고려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▶ A병원 사례



▶ B병원 사례



유사 주의경보

2018년 제5차 환자안전 주의경보 (2018.7.30.)

❖ “잘못된 혈액형의 수혈 오류 발생”



환자안전 주의경보 바로가기!

참고자료

-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(2021). 수혈관리위원회를 위한 핸드북
- 대한수혈학회(2016). 수혈가이드라인
- 의료기관평가인증원(2018). 3주기 급성기병원 인증기준.
- 의료기관평가인증원. 2018년 제5차 환자안전 주의경보[잘못된 혈액형의 수혈 오류 발생].
- JPAC(2014). Safe transfusion – right blood, right patient, right time and right place.
- Saluja, G P & Bank, Sr. (2015). Traceability Of Blood/Blood Components.

• 급성기병원 인증기준 항목

2.3.4	환자에게 혈액제제를 안전하고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 관리한다.
조사 항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안전한 혈액관리 절차가 있다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혈액제제 종류와 관리 • 혈액제제 보관 및 준비를 위해 필요한 시설, 장비관리 • 수혈 전 검사: ABO혈액형검사의 혈구형, 혈청형검사와 Rh(D)혈액형검사 및 비예기항체 검사와 교차적합시험 검사 등 • 문제 확인을 위한 절차: 환자 혈액 검체와 적혈구 제제의 관분절 보관 • 혈액제제의 불출 및 반납관리 • 혈액제제의 재고 관리: 항시 혈액제제가 공급될 수 있는 절차 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혈액제제 수급 및 재고관리를 위한 시스템(의료기관 차원의 관리시스템 및 국가에서 운영 중인 혈액수급감시를 위한 시스템(Blood Inventory Monitoring System, BMS) 등)활용 • 혈액제제의 폐기 관리(폐기 시 폐기물관리법 준수) ② 혈액제제를 안전하게 보관한다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혈액제제 성분별 보관 장비의 관리 • 일정간격으로 온도 관리 기록 ③ 수혈 전 검사와 환자 혈액검체를 관리한다. ④ 혈액제제의 반납, 재고, 폐기를 수행한다.
3.2.3	수혈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.
조사 항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안전한 수혈을 위한 규정이 있다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혈액제제 관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수혈 전 혈액제제 확인 절차 - 혈액전용냉장고 사용 시 관리: 온도관리, 혈액제제 구분 등 - 혈액전용냉장고가 없는 경우 적절한 시간 내에 수혈되는지 관리 • 수혈 전 환자 확인 • 수혈 시 주의사항 및 수혈부작용 발생 시 대처방안 ② 불출된 혈액제제를 보관하고, 적절한 시간에 환자에게 수혈한다. ③ 수령한 혈액제제를 정확하게 확인한다. ④ 수혈 시 부작용 여부를 관찰하고 기록한다.



‘함께 보고하고 함께 보호받는’
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, KOPS



- * 보건 의료기관에서는 수혈 관련 환자안전사고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*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(KOPS)에서는 유사 환자안전사고 보고 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, 향후 추가적으로 관련 정보가 제공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- * 환자안전 주의경보에 대한 각 보건 의료기관의 점검사항은 2023년 1월 27일까지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(www.kops.or.kr)에 자율적으로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
바로가기!